

보도자료	작성과	안전기획과
2018년 5월 11일(금) 조간 (5. 1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장 정윤한 주무관 오영남
	연락처	044-205-4110 044-205-4121 (010-3033-5709)

산나물과 비슷한 독초 중독사고 조심하세요!! - 주간(5.13. ~ 5.19.) 안전사고 예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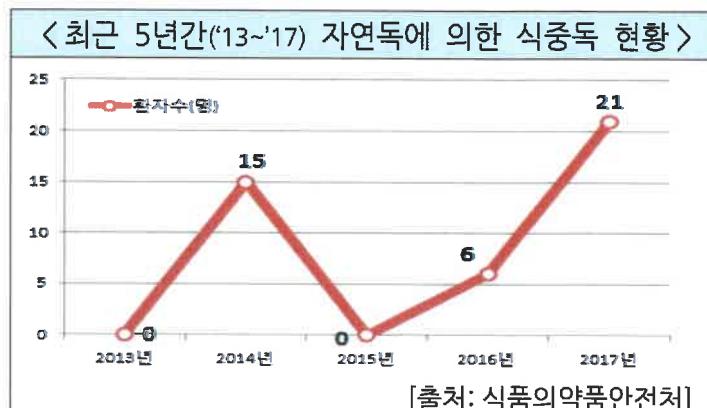
- ▶ 2007년 4월 22일 산악회원 10여명이 경북 영천시의 ○○산에서 산행 중 미치광이풀(낭탕근)을 천궁잎으로 잘못 알고 채취하여 먹은 후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음
- ▶ 1994년 5월 29일 지리산에서 여성 2명이 지리강활을 당귀로 잘못 알고 섭취하여 중독 증세를 보임

[출처: 알기쉬운 독초·독버섯, 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산행 시 등산로 주변의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채취하여 먹고 발생하는 '독초 중독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새순이 돋아나는 봄철에는 등산로 주변으로 자생하는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 섭취하여 발생하는 중독사고 위험이 높다.

※ '18.4.23. 독초인 자리공을 도라지인줄 알고 잘못 먹고 일가족 4명 중독증세(KBS 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 총 4건의 자연독 중독사고*로 4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14년) 1건 15명, ('16년) 1건 6명, ('17년) 2건 21명



- 자연독의 발생건수 대비 환자수를 살펴보면 10.5명으로, 1건의 사고로 11명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히, 독초는 산나물로 잘못 알고 채취 후,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 요즘처럼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에는 전문가들도 독초와 산나물의 생김새가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렵다.
-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등산로 주변 산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직접 채취하지 말고, 내가 잘 모르는 산나물은 먹지 않는다.
 - 특히, 일반인들이 산나물로 혼동하기 쉬운 것들로는 독초인 여로를 산나물인 원추리로, 동의나물(독초)을 곰취로, 박새(독초)를 산마늘로 오인하기 쉬우니 더욱 주의한다.
 - 아울러, 먹을 수 있는 산나물 중에서도 원추리순,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은 미량의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후 섭취한다.
 - 산나물이나 약초를 먹은 후 구토, 두통,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 이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먹던 산나물이나 약초를 병원으로 가져가 확인 후 치료 받는 것이 좋다.
- 정윤한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요즘처럼 새순이 돋는 시기에 산행을 할 때에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 섭취하지 않도록 모르는 산나물이나 약초는 채취도 섭취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참 고

흔들하기 쉬운 산나물과 독초 현황

산나물	독초
원추리 털과 주름이 없음 	여로(독초) 잎에 털이 많으며, 길고 넓은 잎은 대나무 잎처럼 나란히 맥이 많고 주름이 깊음 
산마늘 마늘냄새가 강하고 한 줄기에 2~3장 잎이 달림 	박새(독초) 잎의 아랫부분은 줄기를 감싸고 여러 장이 촘촘히 어긋나며, 가장자리에 털이 있고 큰 잎은 맥이 많고 주름이 뚜렷함 
곰취 잎이 부드럽고 고운털이 있음 	동의나물(독초) 주로 습지에서 자라며, 둥근 심장형으로 잎은 두꺼우며, 앞, 뒷면에 광택이 있음 

산나물	독초
참당귀 잎은 오리발의 물갈퀴처럼 불어 있고 뿌리와 연결되는 줄기 하단부의 색상이 흰색이며, 꽃은 붉은색임 	지리강활(개당귀, 독초) 잎이 각각 독립되어 있고 뿌리와 연결되는 줄기 하단부의 색상이 붉으며, 꽃은 흰색임 
우산나물 잎이 2열로 깊게 갈라짐 	삿갓나물(독초)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은 잎이 6~8장 돌려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먹을 수 없는 독초

초오(투구꽃)	자리공
	